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25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수 산 과	담 당 자	• 어업지도팀장 이재천 ☎ 440-4861 • 담당자 김 현 ☎ 440-486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가을 꽃게철 맞아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 8. 29. ~ 11. 30. 인천시 주축 8개 기관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시기(9. 1.~11. 30.)를 맞아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 옹진군 등 10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했다.

연평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된 곳으로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옹진수협, 인천해양경찰 등의 협조로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현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시를 주축으로 8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옹진군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어

민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해 접경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연평어장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선의 월선조업 방지 및 피랍 예방 등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어린게·외포란게 어획 및 유통행위,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평 어업인들의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개시일인 9월 1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돛)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연평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해수부, 해군, 해경, 웅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연평어장 주변에 침적된 해저 폐기물 수거작업을 가을어기 조업시작 전인 26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잘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출항준비 연평어선



출항준비 연평어선



출항준비 연평어선



조업중인 연평어선